

우리는 타이거즈 '부활조'...재활조 '구슬땀'

KIA 황대인·김도영·임석진·이송찬·이도현 등 합평서 훈련 황대인 "자만했던 지난 시즌 반성...초심으로 경쟁하겠다"

기아-합평 챌린저스 필드가 새출발을 다짐하는 이들로 뜨겁다.

12월 1일은 KBO리그의 비활동기간이다. 프로 야구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지만 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부상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2024시즌을 맞이 위해 '재활조' 선수들이 챌린저스 필드에서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팔꿈치 뺏조각을 제거한 황대인을 필두로 발목 인대 수술을 받은 임석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당한 손가락 부상으로 인대 봉합술을 받은 김도영 등 내야진과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2023 동기' 투수 이송찬과 이도현 등이 재활조에서 새봄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최고의 시설을 갖춘 챌린저스필드에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차분하게 재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재활조 '만행'인 황대인에게는 마음을 다시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황대인은 2022시즌 입단 후 가장 많은 129경기에 출전했다. 14개의 홈런을 날리며 91타점도 수확하는 등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내면서 1루 자리를 선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황대인은 지난 시즌에는 60경기에 나와 0.213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부진 속 뺏조각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까지 찾아오면서 황대인은 9월 24일 KT전을 끝으로 아쉬움

의 시즌을 마감했다.

황대인은 "프로와서 제일 힘든 시즌이었다. 어느 정도 성적을 낸 다음 연도에 고꾸라지니까 많이 되돌아보게 됐다. 내 잘못이다. 어떻게 보면 건강을 댄 것도 있다. 더 해야 했는데 안주했다"고 2023시즌을 돌아봤다.

2015년 프로 입단 후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낸 뒤 바로 추락의 시즌을 맞았던 만큼 황대인은 '멘탈'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

황대인은 "지난해 내 자리가 없다 보니까 힘들었다.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에 생각이 많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많이 두려웠다. 이제 기술보다는 멘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멘탈적으로 흔들리니까 타석에서도 흔들렸다. 타석에서 다리가 떨리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게 해야 한다. 나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다. 핑계를 많이 댔는데 그냥 내가 못한 것이다. 핑계 없이 잘 준비해서 시즌을 잘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결핵식을 하면서 또 다른 책임감도 생긴 시즌, 황대인은 1루 경쟁을 통해 개인 성장과 팀 성적을 동시에 잡겠다는 각오다.

황대인은 "혼자일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들이 되니까 부담감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생기는 것 같다. 부담이 10이라면 좋은 게 90이다. 지난해 힘들었을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며 와이프에 대한 고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황대인(오른쪽) 등 재활조 선수들이 기아-합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

마음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이야기했다.

또 "올해 10년 차인데 부담감을 이겨내는 과정이 계속 있었다. 부담을 느끼는 자체가 프로로서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이겨야 한다"며 "지난해 1루에서

누군가 확실하게 해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팀이 '가을 야구'를 못했다. 1루수들 반성해야 한다. 나도 반성 많이 했다. 수술하고 세 달 지났는데 통증이 없고, 재활 잘 되고 있다. 시즌 치르는 데 문제없

다. 경쟁자들이지만 보고 배울 것은 보고 배우면서 팀이 잘할 수 있도록 경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3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 축구대표팀 조현우, 송범근, 박우우, 손흥민, 이순진이 11일(현지시간) 오전 카타르 도하 앞에글라 훈련장에서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컵 첫 여성 심판

김경민 부심 등 5명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대회 사상 최초로 여성 심판이 탄생한다.

APTN 통신은 11일 "여성 심판 5명이 아시안컵에 데뷔한다"고 보도했다.

13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는 18개국에서 35명의 주심과 39명의 부심이 선발됐는데, 이 중 여성은 5명이다.

주심 명단에는 케이트 아체비치(호주), 야마시타 요시미(일본) 심판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김경민 심판과 보조노 마코토, 데시로기 나옴이(이상 일본) 심판은 부심으로 참여한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아시안컵에 나서는 이는 아체비치 심판이다.

AFC는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카타르와 레바논의 개막전 비디오 판독(VAR) 보조 심판으로 아체비치 심판을 배정했다.

이란인 심판 알리레자 파가니가 주심을 맡는 이 경기에는 한국의 고희정, 윤재열 심판이 각각 대기심과 예비심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KBO 첫 '로봇 심판'

개막전부터 투구 볼 판정

2024시즌 개막과 함께 KBO에 '로봇 심판'이 도입된다. 스피드업을 위한 '피치클락'은 전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KBO가 11일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KBO리그 새 제도 도입 순서와 시기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볼을 판정하는 자동 투구판정 시스템(ABS)이 오는 3월 23일 개막전부터 운영된다.

개막과 함께 베이스 크기도 메이저리그처럼 확대되면서, 부상 발생 감소와 도루 시도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수비 시프트 제한도 바로 적용된다. 수비 시프트 제한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고, 수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인 '피치클락(투구 시간 제한)'은 전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후반기에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퓨처스리그에서는 전반기부터 '피치클락'이 운영된다.

경기에 투입된 투수가 최소 세 타자를 상대하는 제도도 퓨처스리그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2022년부터 퓨처스리그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장전 승부차기 도입 여부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종이호랑이'는 잊어라...64년만에 웃겠다

'더는 종이호랑이에 머물 수 없다!'

'아시아 맹주'의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한국 축구가 64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위대한 도전'에 나선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도하, 루사일, 알코르, 알라이안, 알와크라 등 카타르 5개 도시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2023 AFC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개막전은 13일 오전 1시 개최국 카타르와 레바논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이다.

18회째를 맞는 아시안컵은 1956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리는 AFC가 개막 최고의 축구 잔치로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부터 24개국 경쟁 체제가 됐다.

총상금은 1480만 달러(약 195억원)로 우승팀에 500만 달러(약 66억원), 준우승팀에 300만 달러(약 40억원), 4강 진출팀에 100만 달러(약 13억 2000만원)가 돌아간다. 24개 본선 진출국은 모두 2만 달러(2억6400만원)를 받는다.

◇'아시아의 맹주'에 합류하기만 했던 아시안컵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2012 런던

'아시안컵 우승 도전' 클린스만호 카타르 입성...15일 바레인과의 대결 1960년 대회 우승 이후 '무관'...역대 최고 멤버로 세 번째 우승 노력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역대 최다인 6회 우승 등 국제 무대에서 빛나는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아시안컵만 따지면 '종이호랑이' 신세였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것은 역대 두 차례(1956·1960년)로 참가팀이 4개국에 불과했던 시절이었다. 이후 4차례 준우승(1972·1980·1988·2015년)과 4차례 3위(1964·2000·2007·2011년)의 성적을 거뒀다.

아시아 무대 최대 라이벌인 일본이 4차례 우승(1992·2000·2004·2011년)한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2015년 대회 결승에서 연장전 끝에 호주에 우승 트로피를 내준 한국은 2019년 대회에서는 8강에서 탈락했다.

◇'역대 최고 전력'...64년 만의 정상 도전 올해 아시안컵에 나서는 태극전사의 면모를 따지면 '역대 최고'라고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난해 2월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출범 이후 5경기 연속 무승(3무 2패)에 빠지며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전(1-0 승)에서 출범 첫 승리를 따낸 이후 지난 6일 이라크와의 평가전까지 6연승에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쳤다.

이번 아시안컵에 나서는 태극전사 26명 중 아시아와 중동 무대를 포함한 해외파 선수가 14명이다. 특히 유럽파 선수만 11명에 이르는 호화 멤버다.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 공동 3위(12골)인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EPL 득점 6위(10골)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필두로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독일 분데스리가의 '철기둥'으로 변신한 김민재(뮌헨) 등 유럽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월드 클래스급'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았

다.

여기에 오현규(셀틱)와 조규성(미트윌란), 황인범(즈베즈다), 이재성(마인츠)까지 포진했다.

◇클린스만호, 조별리그 상대는 누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클린스만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바레인(86위·역대 전적 11승 4무 1패), 요르단(87위·역대 전적 3승 2무), 말레이시아(130위·역대 전적 26승 12무 8패)와 조별리그 E조에서 경쟁한다.

한국은 15일 바레인,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이상 오후 8시 30분)와 차례로 만난다.

역대 전적에서나 FIFA 랭킹에서나 한국은 E조 최강 전력이다.

첫 상대인 바레인과는 2007년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서 한 차례 패한 게 유일하다. 이후 3차례 맞대결에서 2승 1무로 앞서고 있고, 두 번째 상대인 요르단과는 역대 전적에서 무패다.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이자 E조 최약체로 꼽히는 말레이시아와는 1989년 6월 이후 만나 본 적이 없다. 말레이시아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출신인 김판관 감독이 지휘하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